



# 기록으로 보는 신라시대 자연재해 이야기

전경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무관

오늘날 기후나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이 그것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간은 기후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바꾸기도 했다. 역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후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흐름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과정이다. 신라의 역사도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이나 사용한 도구 그리고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한다. 전자(前者)가 물질적인 증거라면 후자(後者)는 기록으로 남겨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경찰은 범인의 행적을 복원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연구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물질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고고학(考古學)과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문헌사학(文獻史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방법론은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삶을 복원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옛 역사서(歷史書)에 남겨진 기록을 중심으로 신라에서 발생했던 자연재해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 자연재해가 기록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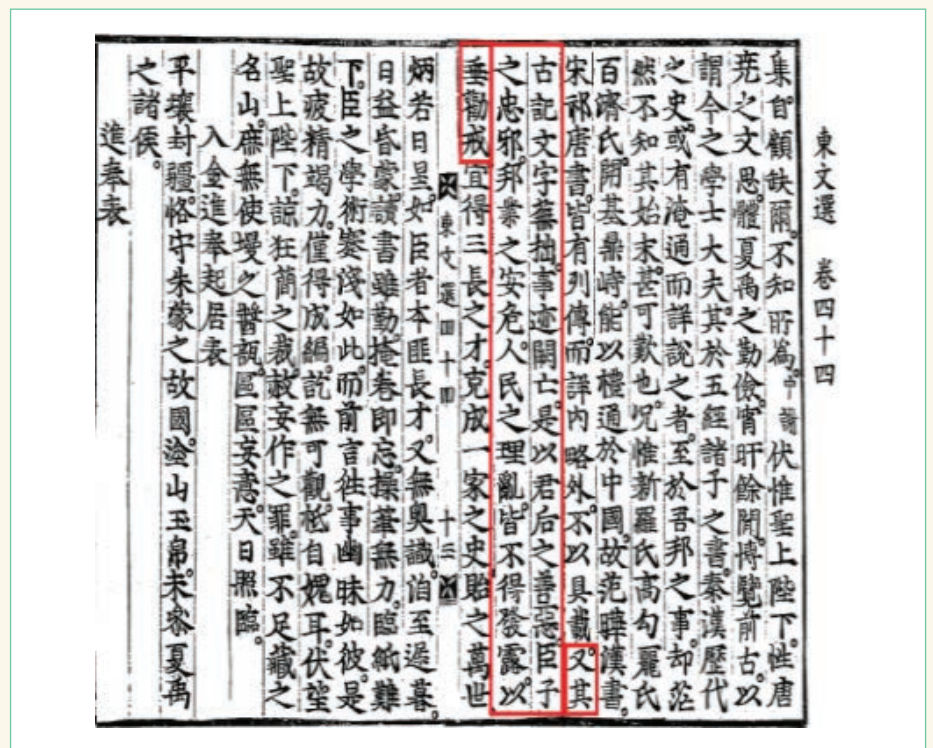


사진1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 동기를 설명한 부분 (붉은색 테두리)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자연재해가 기록된 요인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편찬 책임자였던 김부식(金富軾)은 그 편찬 동기를 설명하면서 ‘옛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군주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못됨, 국가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통제와 혼란 등을 드러내어 권하거나 경계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언급을 통해 삼국사기 편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옛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자연현상에서도 얻을 수 있다. 전통시대 사람들에게 자연현상과 인간의 행위는 연관되어 서로 반응한다는 ‘천인감응(天人感應)’이라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대부분의 역사서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 자연재해를 다룬 문헌

자연재해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역사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자연재해만 다룬 것은 아니다. 일부 역사서에는 세부 서술 항목 가운데 정치·경제·지리 등 각종 제도나 정책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러한 항목을 지(志)라고 하는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자연재해는 하늘의 현상을 기록한 천문지(天文志)나 땅의 현상을 기록한 오행지(五行志)라는 항목에 기록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여러 개의 지(志)를 모았다는 뜻의 잡지(雜志)라는 큰 항목 아래에 제사(祭祀), 음악(樂), 관복이나 의복(色服), 수레나 탈것(車騎), 그릇(器用), 집(屋舍), 지리(地理), 관직(職官) 등의 작은 항목이 있을 뿐이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항목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기본 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정치나 외교 등 다른 내용과 함께 등장하는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 밖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1903년~1908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고대 이전부터 구한말까지의 각종 문물제도를 망라하여 정리 및 분류한 내용을 담았다. 그 중 1권~11권까지는 상위고(象緯考)라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각종 천문현상,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이상한 동식물의 출현 등 다양한 세부항목이 등장한다. 세부항목은 신라~조선까지 시대별로 분류되어 각 시대에 어떠한 재해나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늦은 시점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른 역사서나 참고자료도 이용하여 그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보기 편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가 멸망한 시점부터 책이 편찬되기까지 기간이 멀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증보문헌비고를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자연재해 기록의 특징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 동안 존재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연재해 횟수는 911회인데, 이는 정치, 외교, 전쟁 등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서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연재해 기록은 전쟁이나 외교보다 그 비중이 크다. 그만큼 전근대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연재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인들이 겪었던 자연재해 횟수는 584회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해인 홍수와 가뭄은 물론 이상한 동식물의 출현 등 기이한 사건 발생 등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전체 자연재해 중 신라에서 발생한 비중이 큰데,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하여 서기 660년에 멸망했으며,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여 서기 668년에 멸망했다. 이들 국가의 정확한 건국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신라보다 그 지속기간이 짧다는 것은 분명하다. 백제나 고구려는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했으나 그 기록을 승자인 신라가 그대로 보존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전쟁 상황에서 많은 자료가 흩어지거나 사라졌을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도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보다 270년 정도 더 지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남길 수 있었다.

**둘째,**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를 비롯한 고등종교의 수용과 확산 그리고 유학 등 각종 학문 교육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체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자연재해 기록의 시기별 증감은 불규칙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여겨지는 통일신라 초반인 8세기에 자연재해 기록 횟수는 138회로 가장 많다. 물론 기후나 환경 변화로 인해 유독 8세기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라의 행정체계가 잘 작동하여 말단 행정 단위까지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2

**69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촌락 문서**

이 문서는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 근처에 있었던 촌락의 범위는 물론 인구, 소와 말, 각종 나무(樹木)의 증가와 감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서 신라 중앙 정부는 지방 말단 촌락의 현황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사진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자연재해의 사례

신라의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홍수나 가뭄 등을 비롯하여 지진, 이상 고온 및 저온 등이 있었으며, 특이한 사례로는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赤潮) 현상과 천연가스 분출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들 사례는 현재 우리들도 쉽게 겪거나 접할 수 있는 자연재해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우선 지진은 60회 발생했다. 기록된 횟수만 이 정도이고, 실제 발생했으나 기록에서 빠졌을 가능성,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약한 지진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더 많은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을 것이다. 특이한 지진 사례로는 388년 여름 4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두 달 뒤인 6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주와 포항 지진의 사례처럼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지속된 여진(餘震)의 사례로 봤을 때 이 기록도 여진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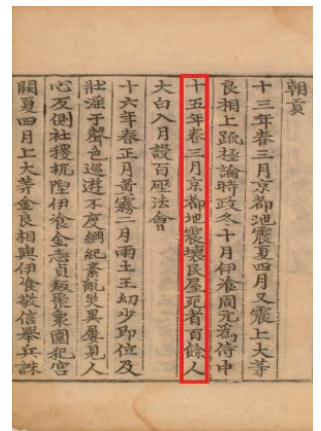


사진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779년 지진 기록(붉은색 테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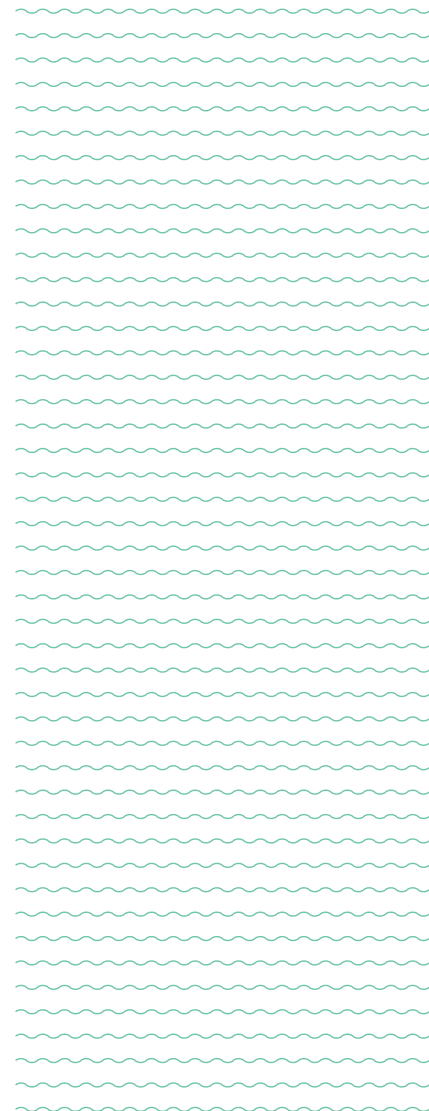
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10년 여름 5월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으며, 779년에도 이와 비슷한 지진으로 인해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 지진은 기록상 신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지진이었다.

지진 피해는 오늘날과 다른 건축 방식이나 재료 때문에 무조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건축물이 붕괴하고 죽은 사람이 생겼다는 점에서 2016년 당시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그 강도가 션다고 추정된다. 결국 삼국사기 지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점, 둘째 2016년 이전에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진 발생 빈도 상 오히려 특수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홍수는 30회 발생했다. 원래 경주 중심부는 하천의 범람 때문에 형성된 선상지(扇狀地 : 모래나 자갈이 부채꼴처럼 넓게 퇴적된 지형)여서 물이 많은 지역이었다. 문헌 기록이나 발굴 조사 결과를 보면 경주에 많은 우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지형적인 요인이 우물의 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물이 많다는 것은 지하수가 많이 흐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경주 지역의 잦은 홍수로 인해 습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정과 관련있다. 하천의 범람은 신라시대 경주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720년 여름 4월에 큰 비가 내려 13곳의 산이 무너졌고, 그 다음 달에는 관리에게 명하여 해골을 땅에 묻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도 해골이 드러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평지에 있는 옛 무덤들도 상당수 파괴 되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홍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다. 785년에 신라 37대 왕인 선덕왕(宣德王)이 죽자 신하들은 선덕왕의 조카뻘인 김주원(金周元)을 다음 왕으로 정했다. 당시 김주원은 오늘날의 북천(北川, 또는 알천(閼川))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는 왕궁으로 올 수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신하들은 홍수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존의 결정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을 왕위에 올렸다. 바로 그가 원성왕(元聖王)이었다.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한 김주원은 강릉으로 이주하여 훗날 강릉 김씨의 시조로 추앙받는다. 한 국가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홍수가 그의 임금 자리를 빼앗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홍수는 신라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자연재해였다.

한편 지구 온난화는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론된다. 요즘 들어서 일찍 시작되는 폭염과 혹한 등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 그런데 폭염이나 혹한까지는 아니지만 이상 고온이나 저온 현상이 신라시대에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01년과 386년의 기록에 따르면 겨울 10월에 북송아와 자두꽃이 폈다고 전하며, 838년에는 5월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이들 기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겨울에 과일나무의 꽃이 피고, 한 여름에 눈이 내린 셈이다. 이러한 사례는 겨울에 개나리꽃이 피거



나 올해처럼 3월 하순 남부지방에 폭설이 오는 현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 기후는 신라 사람들도 겪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상 고온이나 저온 현상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신라시대에도 나타났던 사례가 더 있다. 바로 적조(赤潮)와 천연가스 분출 현상이다. 적조는 바닷물에 영양분이 많아 지거나 기온이 높아서 바닷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639년에 동쪽 바닷물이 붉어지고 날씨가 더워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고 한다. 바닷물의 색깔이 변했다는 점과 물고기와 자라 등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죽은 것은 오늘날 적조 현상과 일치한다.



사진3

포항 천연가스 분출지역(불의 정원)

또한 657년에 경주 동쪽에 있는 토함산의 땅이 불탔는데, 3년 만에 꺼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2017년 포항에서 공원을 조성하다가 땅 속의 천연가스가 새어나왔고, 지금까지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신라 사람들이

보기에 땅 속의 천연가스로 인해 불이 지속되는 현상은 땅 자체가 타는 현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 기간도 3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토함산의 불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토함산에서 천연가스가 새어나왔고 그것이 불탔던 현상을 설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 사람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자연재해를 살펴 보았다. 그들이 겪었던 대부분의 재해는 현재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기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선부른 결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자연재해가 기록된 배경을 감안한다면 실제 발생했던 사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는 자연재해를 자연의 변화로 바라보지만 신라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는 두렵거나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세운 자연재해 대책을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 신라 사람들의 자연재해 대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자연재해가 신라시대에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드러난 해골을 수습한 것과 같이 피해를 복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다. 707년의 기록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1인당 하루 3되(오늘날 200ml 우유팩 3개 분량)의 곡식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한(漢)나라에서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곡식의 양도 3되라고 한다. 따라서 재해 대책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백성들에게 곡식을 지급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지속된 구

흄에는 약 28만 가마의 곡식이 소요되었다. 또한 2월에는 곡식의 종자를 나누어 주었다. 당시 신라 통치자들은 시급한 문제인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종자 배급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통치자가 의례적인 행위, 즉 요즘으로 말하자면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취하는 방법이다. 자연재해의 원인을 통치자의 행동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신라왕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정무를 보는 장소를 옮기고, 죄수를 사면하기도 했다. 우리가 고려나 조선시대의 왕들의 통치행위라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신라 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모든 통치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천명(天命)을 받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술(呪術) 행위를 동원하는 것이다. 즉 미신(迷信)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하지 않은 자연재해 가운데 혜성(彗星)의 출현이 있다. 혜성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불길한 별로 알려졌다. 아마도 혜성이 눈에 잘 띄고,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등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일식처럼 혜성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신라의 노래인 향가(鄉歌) 가운데 혜성가(彗星歌)에 이러한 신라 사람들의 바람이 드러난다.

옛날 동쪽 물가에 건달바(乾達婆)가 놀았던 성(城)을 바라본다  
왜군(倭軍)이 왔으니 햇불을 꺼라, 변방의 무리여  
세 화랑이 산을 관람한단 말을 듣고, 달도 밝게 비추려하는데  
길을 밝히는 별을 바라보며, 혜성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달아 떠 있더라, 이런데 무슨 혜성이 있는가?

『삼국유사』 권5 감통7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과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2) 무렵 3명의 화랑이 오늘날의 금강산을 둘러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자

화랑들은 금강산에 가는 것을 그만 두려했다. 또한 왜군이 쳐들어오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용천(融天)이라는 스님이 위의 향가를 짓고 노래를 부르니 혜성이 사라지고, 왜군도 물러갔다고 한다. 노랫말을 대략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왜군이 쳐들어 온 사건과 화랑들이 산을 둘러보려 한 사건, 그리고 혜성이 나타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달이 떠 있으니 (밝아서) 산을 둘러보는데 혜성이 불필요하여 물러나라는 의미이다.

곧 노래를 통해 불길한 상황을 해소한 것이다. 노래를 부른 이후 혜성이 사라지고, 왜군도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사람들은 혜성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혜성의 출현 자체는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을 뿐이다. 그 해결 수단이 혜성가라는 노래였다는 점은 오늘날 심리 치료에 노래가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술적인 요소를 이용했다. 결국 신라인들의 자연재해 대책에는 현실과 명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완화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 신라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점

지금까지 신라시대에서 발생했던 자연재해와 신라 사람들이 세운 대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연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과를 재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존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신라 사람들 중에


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어서 흥미롭다. 즉 당시 사람들은 자연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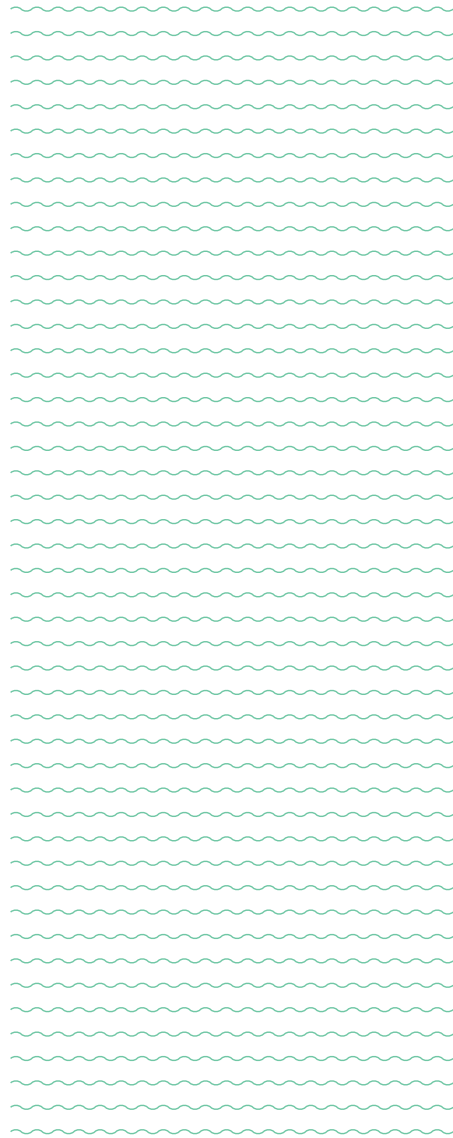
길함과 불길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나라) 주왕(紂王) 때 붉은 새가 나타났어도 나라가 망했고,  
고종 때에는 장끼가 울었어도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정나라) 정공(鄭公) 때에는  
두 마리 용이 싸웠으나 창성했습니다. (생략)  
별이 떨어진 변고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위의 내용은 647년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관군(官軍) 진영에 별이 떨어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자 김유신이 불안해하던 선덕여왕을 진정시키면서 한 말이다. 요약하면, 길하고 불길한 것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길조(吉兆)와 흉조(凶兆)는 단순히 자연현상일 뿐이니 나라의 흥망은 임금의 행동에 달린 것임을 강조했다.

김유신은 인간의 행동과 자연 현상을 분리해서 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김유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고, 훗날 법가(法家)에 영향을 준 순자(荀子)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일식, 때 아닌 눈과 비, 이상한 별의 출현은 언제나 있는 일이었으며, 아무 의미가 없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 사람들의 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800여 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의 삼국시대와 중국의 전국시대라는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연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들 인물들의 견해가 당시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이전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종속되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홍수, 지진, 이상 고온이나 저온 등은 인간을 향한 자연의 도전이었으며, 신라 사람들은 그러한 도전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대응했다. 신라 역사는 정치·경제·문화 등의 역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흐름은 자연에 대한 도전과 인간의 대응이 빚어낸 또 하나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역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라의 자연재해 기록이다. 



#### 필자소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 고대사(신라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월성학술조사단에서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라의 수도(왕경) 관련 문헌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당의 기미책과 재당 신라인」 『신라사학보』 35 (2015),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묵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2018)가 있으며, 현재는 신라 월성의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